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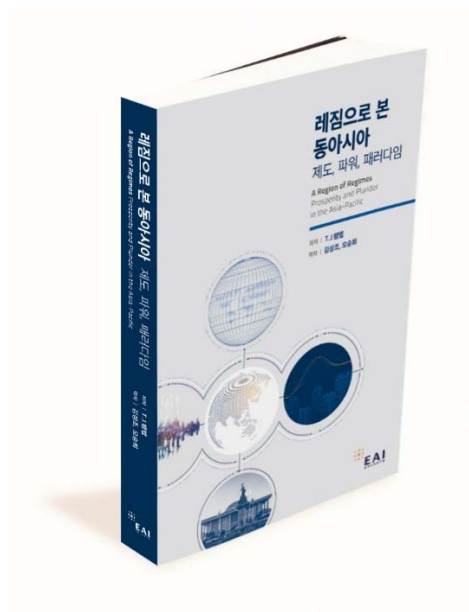
"동아시아전문가 T.J.팜펠 교수가 바라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체계적 분석"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레짐으로 유형화한 동아시아 10개국

한국은 동아시아의 어떠한 유형인가?

중국은 지역 내 어떠한 정치경제 유형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레짐으로 본 동아시아: 제도, 파워, 패러다임』

- 편저자_ T.J.팜펠 저, 김성조·오승희 역
- 발행일_ 2020년 12월 24일
- ISBN 979-11-6617-081-2 93340
- 문 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사무국장 오승희 T. 02-2277-1683(내선 202), seungheeh@eai.or.kr
F. 02-2277-1684
- 출판사_ (재) 동아시아연구원
- 가 격_ 22,000원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경제학자이자 동아시아 전문가인 T.J. 펴펠 교수의 저서 *A Region of Regimes: Prosperity and Plunder in the Asia-Pacific*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자 강점은 동아시아 지역을 유형화하고, <국가기구-사회경제 세력-외부적 힘-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분석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지역들을 종합하여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여 동아시아 지역연구 입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북아시아에만 한정된 시각을 갖고 있는 많은 한국 독자들에게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레짐 유형을 통해 동아시아 10개국의 정치경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지역 명칭과 관련하여 펴펠 교수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으로 표현하지만, 한국 독자에게는 동아시아가 더 접근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번역서에서는 동아시아로 표기하고 있다. 이 책의 부제는 '아시아-태평양의 번영과 약탈'이겠으나,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state institution, economic-social/external forces, economic paradigm을 살려 제도, 파워,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대만, 북한의 경우와 같이 '국가'나 '나라'를 기준으로 동아시아를 명명하거나 분류하기보다는 원저에서 제시하듯이 각각의 '레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을 구분할 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제목 그대로 '레짐으로 본 동아시아'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을 통해 동아시아를 더욱 넓게 바라보고, 동아시아를 어떻게 유형화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머리말

서론

제 1 부

제1장 발전적 레짐: 일본, 한국, 대만

제2장 유사발전레짐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제3장 약탈적 레짐 - 필리핀, 미얀마, 북한

제 2 부

제4장 도전받고 재구성되는 발전적 레짐

제5장 중국: 새로운 복합 발전 레짐?

결론

역자 후기

저자 및 역자 소개

T.J. 펴펠 (T.J.Pempel)_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잭.M.포르시 정치학과 교수 (Jack M. Forcey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미일 친선위원회 (Japan-U.S. Friendship Commission)의 위원,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 (North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에 참가하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버클리대학교의 동아시아학회장과(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일한 아시아학 교수 (Il Han New Chair of Asian Studies)를 역임하였으며, 워싱턴 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잭슨 국제관계학부의 보잉 국제관계학과 교수 (Boeing Professor of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직을 겸임하였다. 주요 연구는 아시아와 국제금융, 그리고 안보 양극성의 쇠퇴 등이다. 저서로는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Regime Shift: Comparative Dynamics of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 (both by Cornell University Press);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Northeast Asia (both by Routledge) 등이 있고, 1997-98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09 세계 경제위기 당시 아시아의 경험을 다룬 Two Crises; Different Outcomes (Cornell University Press)를 편집하는 등 120편 이상의 논문과 기고문 등을 집필하였다.

김성조_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셰필드 대학교(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한국과 일본의 복지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동학에 관한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일본정치, 복지정치 등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일본 고령자 의료보험 개혁의 정치적 동학" 「한국정치연구」 (2017), "일본의 연금개혁과 정당정치: 2004년 연금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18), "일본 헌법 9조 개정의 정치: 아베 총리의 개헌전략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공저, 2019), "분권개혁과 정당정치: 1979년과 1997년 스코틀랜드 권한이양(Devolution) 개혁의 비교" 「국제지역연구」 (2020) 등이 있다.

오승희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인정투쟁의 중일관계: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분석(1949-1972)>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 외교정책, 중일관계, 외교정책분석 등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전후 중일관계 70년: 마오쩌둥-요시다 시기부터 시진핑-아베 시기까지』 (공저, 2019),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2017), "아베 내각의 아시아 정책: 강한 일본을 위한 아시아의 타자화" 「일본연구」 (2018), "미·중 이중적 위계 구조와 한국의 지전략." 「국방연구」 (공저, 2020) 등이 있다.